

[보도자료] 늦은 개강,개학 앞두고 봄 패션상품 쿠팡하세요

2020. 4. 2.



- 봄 시즌 의류와 잡화 최대87% 할인
- 아디다스, 제이에스티나 등 브랜드별 할인행사 진행

2020. 4. 2. 서울- 쿠팡은 4월 '쿠팡 패션위크'를 이달 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평소보다 늦은 개강/개학 등을 앞두고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위한 패션 상품을 선보인다. 캠퍼스룩, 등원룩, 트레이닝복등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시즌 필수 상품들로 모았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2차에 걸쳐 8개 상품, 14개 브랜드의 봄 시즌 상품을 기간 한정 특가로 최대 87% 할인한다. 3일까지 어디에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지오지아 슬림핏 드레스셔츠 등 4개 상품, 아디다스, 라코스테 등 해외브랜드 슈즈들과 킨록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할인한다. 4일부터는 에디션, 힐라, 닥스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기간 한정 할인관과 함께 일주일 동안 여성의류 인기 브랜드 탑결과 로엠 할인관을 운영한다. 아이유가 선택한 제이에스티나 봄 신상 주얼리도 일주일간 할인한다.

특히 로켓배송으로 구매한 패션 상품은 일부 상품군을 제외하고 구입 후 30일 내 무료 교환, 반품이 가능하다. 특별히 '쿠팡 패션위크' 기획전 상품들은 로켓배송 상품이 아니어도 9800원 이상 전부 무료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쿠팡 패션위크'는 매월 첫 주 일주일 동안 새로운 테마를 선정해 패션트렌드 및 할인 상품을 제안하는 기획전으로 시즌 필수 패션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했다.

티파니 곤잘레스 쿠팡 시니어 디렉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강 등이 4월로 연기되면서 예년보다 천천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테마를 구성했다"며 "외출이 힘들어진 만큼 로켓배송, 무료반품으로 빠르고 편리한 '집콕' 쇼핑으로 봄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